

중흥건설 위기에 지역경제 동반 추락 우려

지난해 1만2천가구 공급했지만 상반기 2천가구 불과 광주 올해 건설수주액 전국 최하위...영세업체 일 끊겨 지역 경제단체 “경기 어려운 광주·전남 위해 선처를”

광주·전남 지역 건설공사 물량이 해마다 줄어들면서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위기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최근 검찰수사를 받은 중흥건설의 공사현장마저 감소하자 중흥건설업체의 경영 타격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경제단체들은 광주·전남 지역 경제단체에 중흥건설 관련 탄원서를 접수하는 등 중흥건설의 정상화를 촉구 하고 나섰다.

9일 지역 건설업체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세종시에만 ‘중흥S-클래스’로 1만여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등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전국 아파트 공급 실적 3위라는 성과를 올렸다. 지난해에도 1만2000여 가구를 공급, 최대실적을 올리며 올해 시공능력평가 전국 39위의 중흥건설업체로 성장했다.

하지만 정월주 중흥건설 사장의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계획했던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흥건설은 올해 지난해와 비슷한 1만2000여 가구의 공급 계획을 세웠지만 정 사장의 구속 뒤 사업공백이 계속되면서 상반기 중 부산시와 세종시 2곳에서 2100여 가구를 공급하는데 그

쳤다. 특히, 구속은 면했지만 정장선 중흥건설 회장이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하면서 중흥건설은 기존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정도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중흥건설의 위기로 지역 사업장 역시 신규 현장이 줄면서 중소기업의 일감이 끊긴 상태다. 중흥건설은 올해 광주·전남에 7개 공사 현장(출전2지구·우산동·순천신대5차·나주혁신 4개 현장)을 운영중이었으나 최근 4개 현장을 마무리 지었다. 계획대로라면 신규 현장으로 사업이 이어져야 하지만 진행되지 못하면서 현장 하도급업체 및 근로자들의 일감이 사라졌다.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광주·전남의 건설수주액은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라며 “올해 상황도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중흥건설이 수사를 받게 되 건설

업체가 지명타를 입었다. 영세 업체들을 위해서라도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광주시는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건설업 취업자 비중이 9.5%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보니, 현재의 상황이 지역 경기마저 위축시키고 있다. 지난 5월까지의 건설수주액도 2535억원으로 전국 최하위에 그쳤다.

이에 따라 광주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잇달아 순천지청에 탄원서를 접수하는 등 중흥건설 살리기에 나선 실정이다. 탄원서엔 “호남의 대표 건설사인 중흥건설이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그 파급효과가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헤아려 선처를 베풀어 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률기자exian@

금호타이어 내일부터 부분파업

근무조별 14일까지...성과 없으면 17일부터 전면파업

지역경제 “지역경제 벼랑으로 내모는 격”...철회 촉구

금호타이어 노조가 11일부터 부분파업을 예고했다. 지역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우려를 나타내며 파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9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지회는 지난 7일 오전 광주공장에서 ‘2015 단체교섭 정의대 책임위원회’를 열고 전 조합원 투쟁지침을 결의했다. 지침에 따라 노조는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근무조별로 4시간의 부분 파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회사에서 실시하는 사전회의를 전면 거부하고 오는 17일부터는 전면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임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적법 절차에 따라 정의행위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사측은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나흘간의 부분 파업 기간 116억원, 전면 파업에 들어가는 17일부터는 하루 52억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금호타이어 노사는 임금인상을 놓고 견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통상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 약속과 임금 970원(일당) 정책 인상, 올해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 임금피크제에 연동한 정년 60세 연장 등

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기본급 8.3% 정률 인상과 2014년 경영성과급 배분, 기피직무 수당 지급, 1958년생 정년 연장 등을 요구 중이다.

금호타이어 노조의 파업 예고에 광주상공회의소와 광주경제자유협회 등 지역 경제단체들은 파업이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파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상의는 7일 성명을 내고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있는데도 파업을 강행한다는 소식에 우려를 감추지 못한다”며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도 역행하고 수백억 원의 매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경총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협상과정에서 최후수단으로 사용돼야 할 파업이 연례행사처럼 이용되고 있다”며 “양보 없는 협상과 파업만능주의가 계속될 때 기업은 투자이익을 잃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인도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상황에서 파업이 매년 되풀이된다면 지역경제도 황폐화되고 지역민과 소비자도 등을 돌릴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민의 열망과 지역경제계의 뜻을 담아 파업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를 금호타이어 노사에게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임동률기자exian@

신형 K5사면 중고차 가격 보장

기아차, 8월 고객에 혜택...6개월간 1회 무상 수리서비스도

기아자동차가 8월에 신형 K5를 구매한 고객에게 ‘중고차 가격 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9일 기아차에 따르면 이달 신형 K5 개인 출고 고객 가운데 약정서를 쓴 고객을 대상으로 1년 75%, 2년 68%, 3년 62%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중고차 가격 보장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 신형 K5 구매 고객을 안심케어와 서비스케어, 패밀리케어 등 트리플케어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안심케어란 차량 출고 뒤 6개월간 1회에 한해 차량 전·후방 범퍼, 전면 유리 등에 흠집이 발생했을 때 최대 30만 원까지 무상으로 수리해주는 서비스다. 서비스케어는 연간 2회에 한해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전문 담당직원이 차량 인수부터 수리 후 차량 인도까지 해주는 정비 프로그램이다. 패밀리케어는 전국 33개 유명 리조트

숙박권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신청 및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기아차는 오는 31일까지 지점 또는 시승센터를 방문한 신형 K5를 시승한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을 증정하는 ‘타고 보내고 받고 이벤트’를 진행한다. /임동률기자exian@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5 6 9 11 15 37	26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1,689,733,688	8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52,394,844	43
3	5개 숫자 일치 1,260,761	1,787
4	4개 숫자 일치 50,000	88,493
5	3개 숫자 일치 5,000	1,426,759

광주·전남 기업들에

‘에너지 산업 투자’ 요청

조환익의 한전사장 광주경총 포럼서



조환익(65) 한국전력 사장이 “지역 기업들이 에너지산업에 관심을 갖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적극 호소했다.

지난 7일 오전 광주무등파크호텔에서 열린 광주경제자유협회 제1255회 금요조찬포럼의 강사로 나선 조 사장은 “에너지의 과거·현재·미래 그리고 Kepco”란 주제로 강연을 열고, “한전의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광주·전남지역을 대한민국의 새 전력수도이자 세계속의 에너지 허브로 키워나가야 한다”며 “혁신도시를 지역특성과 연계한 맞춤형 첨단 에너지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빛가람 에너지 밸리’로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현재 에너지의 3대 키워드는 불확실성과 새로운 에너지원의 등장(New Players) 그리고 융합이라고 진단하고, 격변의 시대에 이런 불확실성 극복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뉴 플레이어, 스마트 그리드 확산사업 등의 새로운 해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은 신사업 분야를 적극 개척해 2020년까지 해외사업 비중을 15%로 확대하겠다”며 “세계적인 에너지기업으로 힘찬 발걸음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광주·전남의 경영자들이 에너지산업에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률기자exian@



“와인으로 무더위 달래볼까”

태리 등 해외 와인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와인을 정가대비 50%에서 최대 80%까지 할인해 판매한다.

9일 폭염 속 벅북점 식품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와인 그랜드 페스티벌’ 행사장에서 와인을 고르고 있다. 광주신세계백화점은 오는 13일까지 국내 고급 프리미엄 와인시장과 이태리 등 해외 와인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와인을 정가대비 50%에서 최대 80%까지 할인해 판매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은행, 2분기 순이익 228억원

전분기보다 1425% 증가...JB금융지주, 548억원 실적 개선

JB금융지주(회장 김환)는 2015년도 2분기 그룹 연결 공시기준(잠정) 548억원(누계 76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 전년 동기 대비 208.7%, 157.3%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광주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1425.3% 증가한 228억원으로 그룹내 전북은행 198억원, JB우리캐피탈 185억원보다 많았다.

은행의 핵심 이익 지표인 분기중 NIM(순이자마진)은 광주은행의 경우 올 상반기 2차래 기준금리 인하에도 다각적인 수익개선 노력이 효과를 내면서 전분기 대비 0.02%포인트 반등했다. 광주은행 인수 효과가 반영되기 시작했다.

고 JB우리캐피탈이 본격적인 수익정상화 계도에 진입하면서 광주은행은 물론 JB금융지주 전체적으로 고른 실적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JB금융지주 관계자는 “2분기 실적은 광주은행 인수 이후 처음으로 JB금융그룹의 정상적인 이익규모를 가능케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광주은행의 정상화와 전북은행의 내실성장과 JB우리캐피탈의 높은 이익성장세가 더해지면서 향후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대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 회원	재혼
남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여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 스타벅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남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술신 여성' 희망 31-5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이텔 810 68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추소스 대신프리모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타운 신기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